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의 오모리입니다.

어제는 학교 시찰로 구 세토초의 코사이 초등학교와 중심부에 위치한 쿠와타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.

먼저, 코사이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참관 (6학년 → 3학년 → 특별 지원 학급), 교사와의 간담회, 학생들과의 급식 (1학년)이라는 순서였습니다.

이곳에서는

- (1) 아이들이 순진하고 건강하다.
 - (2) 수업은 일방적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묻고 질문하고 있다.
 - (3) 「왕따」 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교사들은 노력 하고 있다.
-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

그리고 쿠와타 중학교에서는 양호실 → 3학년 사립고교 입시 사전 지도 → 상담실 → 수업 참관 (1학년 → 특별 지원 학급 → 2학년)이라는 순서로 시찰했습니다.

이곳에서는

- (1) 수업에 나오지 않고 교내를 배회하는 학생도 있었다. 아울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그들이 사춘기임을 실감했다.
 - (2) 보호자도 자신의 아이들과 어떻게 접하면 좋을지 모르는 것 같았고,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받는 것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.
 - (3) 영어 수업은 선생님의 발음도 훌륭하고, 외국인의 보조도 있어, 저의 학생 시대와는 상당히 달랐다. (부러웠다!)
-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.

전체적으로 볼 때, 선생님들이 지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 배경에는 보호자들의 불안과 지도 본연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.

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지만 , 이번에 피부로 느낀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지 · 덕 · 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.

(추신)

쿠와타 중학교는 저의 모교입니다만, 학교 건물도 체육관도 제가 있던 당시와 전혀 바뀌지 않아 ' 감상 여행 ' 그 자체였습니다. 또한, 상담실에서는 동급생과 우연히 만나는 등 ,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.

그리고 코사이 초등학교의 급식 시간엔 1학년 들의 질문 공세. " 좋아하는 음식은 ? " 부터 " 왜 시장님이 되었어요 ? " 등 훈훈함 속에서 땀을 흘리게 하는 장면도 있어, 아이들의 솔직함에 질 뻔했습니다.